중증 건선도 '완전히 깨끗한 피부'로 되돌릴 수 있어

건강 바로 알기
건선

이지범
전남대병원 피부과 교수

악화·호전 반복되는 면역질환…주사제 유지요법, 광선치료 효과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 유발…조기 치료 중요

최근 중증 건선 환자 A씨가 오랜만에 진료실을 찾아왔다. 약을 복용하며 수 개월간 증상이 괜찮아지는 듯해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 다시 피부 증상이 심해져 방문했다고 했다. 살펴보니 그 전보다 피부 증상이 심했고 병변 부위도 넓어져 있었다. 팔 부위 병변을 살펴보던 중 환자 손가락이 퉁퉁 부은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니 요즘 관절 통증이 생겨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로 혈액 및 골영상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건선 합병증인 건선성 관절염으로 진단했다.

◇재발과 합병증 유발=건선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면역 질환이다. 완치가 어렵다 보니 A씨와 같이 치료나 관리를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 염증이 악화되어 다시 피부 증상이 발현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건선은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피부와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건선 때문이라고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 피부과 의료진의 정확한 진료 및 1차 스크리닝이 중요한 이유다.

건선 증상 악화와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확실하게 염증을 진압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완전히 깨끗한 피부를 목표로 확실하게 피부 증상을 치료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피부과 의사로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부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건선 치료 목표는 다양한 생물학적제제들의 도입으로 '완전히 깨끗한 피부(PASI 100)'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생물학적제제로 건선 합병증인 건선성 관절염도 함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최근 도입된 생물학적제제는 임상 결과에서, 주사제를 유지요법 기준으로 투여한 후 52주차에 환자 10명 중 6명(58.5%)이 완전히 깨끗한 피부(PASI 100)로 개선되었고, 이 수치가 172주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60.5%) 됐다.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서는 투여 24주차에 절반 이상(57.3%)이 증상 20% 개선(ACR20)을 달성했고, 골근부착부염에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환자 부담 줄어든 생물학적제제의 효과와 편의성=그간 생물학적제제는 좋은 효과에도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급여 기준 때문에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 2017년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환자 부담이 10%로 경감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춘 바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등록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더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해 산정특례 기준 개정이라는 건선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생겼다.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된 산정특례 기준안에 따르면 산정특례의 대표적인 걸림돌이었던 광선치료 3개월의 의무기준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선택사항 중 하나로 변경됐다. 이로써 환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건선과 건선 합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생물학적제제 도입으로 건선 치료 목표는 한층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산정특례 개정으로 치료 접근성도 좋아진 만큼, 깨끗한 피부를 잊고 지내고 있는 많은 중증 건선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선 환자를 장기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환자의 상태를 늘 잘 체크하고 건선성 관절염과 같은 합병증 관리까지 신경 써 건선 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때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건선학회 등 학회 차원에서도 여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향후 많은 환자 분들이 깨끗한 피부를 되찾고, 건선이 가져올 수 있는 합병증들도 조기에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안영근 교수팀 연구과제 심포지엄
심부전치료제 검증, '심장조직은행'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전남대 안영근 교수(의과대학·사진)팀의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 심포지엄이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남대 안영근 교수팀은 이날 '마이하트 플랫폼 기반 심부전 제어 및 치료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허혈성심부전 예측과 사람의 심장질환 체외모델을 개발해 심부전 치료제의 검증과 사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내 최초로 '심장조직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연구과제의 준비와 심사 및 평가과정에 대한 설명과 60여명의 참여 연구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 주요 연구 주제인 심부전환자 데이터와 바이오메디컬 융합공합 기반의 체외모델 개발, 바이오나노 센서와 분자영상기술 새로운 심부전 정밀예측 알고리즘 개발, 심부전 치료제 검증 및 기술이전, 그리고 심장조직은행 구축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채희종 기자 cae@kwangju.co.kr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등 사회공헌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6월부터 두 달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부터 두 달간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등 사회공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협 17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검진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혈액질환·심혈관계질환·골밀도·간기능·통풍검사 등 총 5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진대상자는 희망하는 건협 지부에 사전예약 후 검진 당일 국가유공자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공복상태로 방문하면 된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협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20년간 총 10만여 명에게 검진을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건강증진을 도왔다. 더불어 저소득·취약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동절기 물품지원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채희종 기자 cae@kwangju.co.kr

"환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조선대병원, 어린이날 기념행사…공연·전시 재개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최근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

소아 병동 입원 환아에게 손수건, 우산 등 선물을 전달했고 외래 진료실에 다양한 캐릭터 풍선으로 장식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조선대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공연 및 전시 행사도 점차 재개하며 치유와 문화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은 "아이들이 병원을 더이상 무서운 공간이 아닌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환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폐렴구균·대상포진·파상풍·독감
60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권고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볼 계획이라면 폐렴이나 대상포진 백신 등 어르신께 권고되는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백신은 신생아나 소아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르신 역시 백신 접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성인 예방접종 백신으로는 폐렴 등을 예방하는 폐렴구균 백신과 대상포진, 파상풍,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꼽힌다.

폐렴은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국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는 폐렴이 특히 위험하므로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해 예방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신체에 잠복 중이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으키는 질병이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연령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상풍은 상처에 침입한 균이 생성한 독소가 신경 이상을 유발하면서 근육 경련과 통증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흔하지는 않지만 고령자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10년마다 접종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좋다.

독감 백신은 겨울철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맞으면 된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따라 백신이 달라지므로 매년 새로 맞아야 하는 백신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허리,엉덩이,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